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 2

1 회. Bridge

All of us are dead

SEASON 2

1. 아파트 / 석양

벽 한쪽에는 용마루 프로필 사진과 <에스퀼스> 공연 포스터 등이 걸려있고, 장식장 안에는 앨범과 응원봉 등 굿즈들이 진열되어 있다.

용마루와 여동생 하루가 거실 창가에 앉아있다. 초고층 아파트라 효산 시내가 전부 내려다 보인다.

용마루가 휴대폰을 본다. 여전히 통화 불능 상태다. 용마루가 휴대폰을 소파에 던진다.

하루 우리 어떡하지?
마루 월 어떡해. 언젠간 끝나겠지.
하루 만약 안끝나면?
마루 끝나.
하루 그걸 어떻게 알아.
마루 ...끝날거야.
하루 끝나면... 엄마는 어떻게 돼?
마루 ...
하루 치료제 같은거 만들 수 있겠지?

마루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

시내 한복판에서 빛이 번쩍인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잠시 후에 폭음이 들리며 집이 흔들린다.

짙은 연기가 충격파를 따라오고 있다.

마루가 하루를 감싸안으며 엎드린다.

거실 유리창이 깨지고 집이 무너질 듯 흔들리며 침실 방문이 열려버린다.

정신을 차리는 마루와 하루.

마루 야 괜찮아? 안다쳤어? 야 용하루!
하루 오빠, 문...

마루가 불안한 눈으로 문을 본다.

덜렁거리던 문을 부수며 나오는 좀비, 용마루 엄마다.

마루 엄마...

엄마는 곧장 남매에게 달려든다. 엄마를 잡아 집어던지는 용마루.

거실 탁자와 의자에 뒤엉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엄마.

하루 엄마, 하지 마, 그러지 마, 제발 엄마!

엄마가 일어선다. 용마루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아령을 집어든다.

하루가 용마루 팔을 잡는다.

하루 오빠 하지마, 안돼 하지마. 우리 그냥 죽자.

용마루는 눈물이 난다. 하지만 동생을 지켜야 한다.
엄마가 달려든다. 마루는 하루를 밀치고 아령을 휘두른다.
창 밖, 몇 번의 섬광이 연이어 보인다. 포격이 진행중이다.

2. 전시존, 효산고 폭격 / 석양

좁비들로 가득한 운동장, 폭탄이 떨어진다.
생활관 뒷산을 넘어 탈출하던 온조, 남라, 수혁 등이 뒤를 돌아본다.
불길은 학교 복도, 교실을 덮치고 영어생활관까지 밀려온다.
귀남과 싸우던 청산, 귀남을 안고 엘리베이터 홀로 떨어진다. 둘 위로 불길이 덮치며,

3. 효산고, 영어생활관 / 여명

회색 재가 눈 처럼 날리고 있다.
바람에 날린 재가 영어생활관 엘리베이터 홀로 들어간다.
귀남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그을려 돌무더기에 반쯤 파묻혀 있다.

돌무더기 사이로 누군가의 눈이 보인다.
감았던 눈을 뜬다. 흰자위가 빨갛게 물들어 있다.
미동도 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 그러다 일어난다.
그를 덮고 있던 돌무더기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재가 연기처럼 날린다.
먼지가 가라앉으며 뒤돌아 앉은 사람의 등이 보인다. 불에 탄 옷이 맨살에 눌러붙고,
화상을 입은 피부가 벗겨져 일어나 있다.
길게 기지개를 켜고 주변을 돌아보는 얼굴. 청산이다.

청산 아이 씨... 배고파.

청산이 발 아래 떨어진 '남온조' 명찰을 밟고 지나간다.
<E1. Bridge> 타이틀 오른다.

4. 국립독성연구소, 지하 격리실 / D

좀비 하나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유리벽에 부딪쳐 넘어진다.
 벌떡 일어서더니 또 달려오는 좀비. 유리벽을 인지하지 못한다.
 유리벽 앞에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한실장과 오국장이 서있다.
 화면 넓어지며 격리실 전경 보인다. 사선으로 놓여 분리된 방에 커다란 환기통들이
 연결돼 있고 좀비와 절비들이 수용되어 있다. 한쪽 눈이 붉게 변한 절비도 있고 일반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절비도 보인다.

한실장 지금 분석한 바로는 세 종류로 나뉩니다.
 (좀비랑 절비 가리키며) 시체나 다름없는 완전감염자랑 살아있는 상태로
 발병이 된 반감염자, 일명 좀비랑 절빈데, 연구소에서는 절비를 브릿지라
 불러요.
 오국장 브릿지? 다리?
 한실장 좀비 바이러스가 변이를 이어가면서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인간 몸에
 완벽하게 숨을 거립니다. 그게 진화의 최종 단계고, 이걸 거기로 건너가는
 다리로 보는 거죠.
 오국장 세 종류라며. 좀비, 절비, 나머지 하난 뭔데?
 한실장 절비가 두 종류예요. (한쪽 눈이 붉은 절비와 그렇지 않은 절비 가리킨다)
 공격성이 높은 종, 공격성이 없는 종. 차이는 눈 색깔 정도고요.
 오국장 이렇게 변종이 생기면 치료제나 백신이나 가능 한 거야?
 한실장 지금까지 인류가 정복한 바이러스는 천연두 딱 하나 밖에 없어요.
 성공 사례가 하나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봐야죠.

5. 상가거리 - 청산치킨 앞 (전시존 12 회 #8) / D, 안개

군인들이 시내 거리와 건물을 수색하고 있다.
 간헐적으로 총소리가 들리고, 수색을 마친 구역에는 안전구역 스티커를 붙인다.
 청산치킨 출입문에도 안전스티커가 붙는다.

6. 남라 아파트 전경 - 복도 / D, 안개

아파트 비상계단 문이 열리며 남라가 들어온다.
 복도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다. 곳곳에 핏자국이 보이고 떨어진 장바구니 옆에 있는
 생선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다.
 남라가 현관 앞에 선다. 현관에도 피 묻은 손바닥 흔적이 남아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남라, 잠시 멈춘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른다.
 집 안에서 탁탁탁탁! 뛰어오는 소리 들리더니 안쪽에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남라는 소리와 냄새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다. 눈물이 주룩 흐른다.

이대로 돌아갈까, 얼굴이라도 볼까, 고민 하던 남라가 문을 연다.
문을 열자마자 손이 불쑥 나와 남라를 잡지만 같은 종인 걸 알고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는다. 안전고리가 채워진 문은 한 뼀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좀비로 변한 부모님 얼굴은 확실히 보인다.

남라 엄마... 아빠...

엄마 얼굴을 쓰다듬으려는 남라, 엄마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손길을 거부한다.
남라가 쪼그려 앉아 운다. 부모님은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친다.

7. 아파트 상가 / D, 안개

인적은 없고 쓰레기만 바람에 나뒹굴고 있다.
눈물을 닦으며 걸어가는 남라, 총소리가 들리자 놀라 멈춘다.

8. 아파트 상가, 마트 앞 / D, 안개

계속되는 총소리, 잠시 후 수색팀 팀장 강대위 등이 마트에서 나오더니 ‘이곳은 안전구역입니다’ 그린 스티커를 붙인다. 팀원들이 마스크를 내리고 심호흡을 한다.

<인서트> 남라가 건물 모퉁이에서 군인들을 보고 있다.

남라가 있는 쪽으로 급히 총을 겨누는 강대위,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마스크를 올리는 팀원들.

남라 쪽으로 가던 강대위가 주차된 탑차 앞에서 멈춘다. 남라가 목표가 아니었다.
텅 소리가 나며 탑차가 아주 조금 움직인다. 팀원들 일부는 운전석을 확인하고 일부는 화물칸으로 간다.

양하사가 탑차 문을 한 뼀 정도 열더니 총구에 부착된 랜턴으로 안을 살핀다.
20 대 여자가 몸을 웅크린채 앉아있다. 코를 찌르는 냄새, 바닥에 널린 물과 빵봉지, 과자 봉지들... 양하사가 문을 활짝 연다.

<동 장소>

여자는 탑차 옆 바닥에 앉아있고 수색팀원들은 총을 겨누고 있다.
양하사는 혈액 검사 준비를 하며 다정하게 말한다.

양하사 검사 하나만 할게요. 이게 원래 다 해야 되는 거라서. 대학생?
 (여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조금 따끔해요.

혈당 측정기 처럼 생긴 신속 검사기를 여자 손가락 끝에 대고 혈액 검사를 한다.
잠시 후 ‘비정상 혈액’ 결과가 뜬다. 놀라 물러서며 총을 겨누는 양하사.

양하사 반감염잡니다.

여자는 멍한 눈으로 군인들을 보고 있다. 죽여야 하지만 아무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양하사 일단 데려갈까요?

강대위 소탕 작전이야. 좀비든 절비든 다 사살이야.

양하사 학생이잖아요.

강대위 감염 즉시 사망자로 분류해. 재 지금 살아있는거 아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강대위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여자 배고파요.

강대위 ...

여자 배고파.

양하사 (총 내린다) 후송하시죠 팀장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까.

양하사를 따라 하나들 썩 총을 내리는데, 탕!

<인서트> 남라가 놀라 입을 막는다.

총구에서 화약 연기가 나오고 있다. 강대위 총이다.

놀라 굳어있는 남라 위로 성우 목소리 들린다.

성우 (소리) 이제 여덟살이 된 현지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9. 개인방송 화면 - 학원 강의실 / D

폭격의 흔적으로 큰 구덩이가 파이고 전쟁터 처럼 폐허가 된 시내, 곳곳에 나뒹구는 시신들, 격리소 철조망 안으로 보이는 초라한 어린아이의 얼굴 위로 호소력 깊은 성우 목소리 들린다.

성우 (소리) 엄마와 아빠는 좀비가 되었고 할머니는 폭격에 사망했습니다. 지금 효산시 격리소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효산 시민에게 사랑을 보내주세요.

효산시민 돕기 광고 영상이다. 휴대폰으로 광고를 보던 고 3 여학생 조수박, 후원하기 버튼을 누른다. ‘효산시민 돕기 국민연대’ 단체명과 후원 계좌가 적혀있다.

10. 효산고 - 국정원, 심리정보국 감시감청실 / N - D

<효산고, 교실>

군인들 서너 명이 교실을 수색하고 있다. 불에 그을린 책상과 의자,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치라이트 불빛, 곳곳에 널린 좀비 시체들로 음산하다.

<국정원, 감시감청실>

전 썬 전술카메라 영상이 모니터로 보인다. 오국장이 심각한 얼굴로 모니터를 보고 있다.

오국장 여기가 거기야?

한실장 예. 바이러스 최초 진원지 효산고요.

오국장 거기 BA(bombardment)잖아. 아무도 못살아남았을 텐데.

<효산고, 복도>

복도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군인들. 다른 군인들이 교실을 나서며 그린 스티커를 붙인다. 그 때 군인 하나가 급하게 복도 끝을 겨냥한다.

반나신의 감염자가 서있는데 너무 멀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군인 1 이 혈액검사기를 던진다. 검사기가 복도를 미끄러져 와 감염자 발에 맞고 멈춘다.

군인 1 손 끝에 대고 누른 다음에 이쪽으로 던져.

군인들은 멀리서 총을 겨눈 채 서있고 감염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군인 1 지시 불응하면 발포한다. 자가 검사 진행 해.

...마지막 경고다. 5 초 안에 검사 해. 다섯, 넷, 셋,

창 밖으로 헬기가 날아가며 서치라이트가 복도로 들어온다. 불빛이 감염자 얼굴에 닿기 직전 총소리가 들린다. 카운트가 끝나기도 전이었다.

예광탄이 레이저 처럼 붉은 선을 그리며 복도를 가득 채우고, 감염자는 벽을 타고 천정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며 군인들에게 달려온다. 사람의 몸놀림은 아니다.

군인들 사이로 뛰어든 감염자, 군인들을 집어던지고 목을 꺾는다.

순식간에 군인들을 해치운 감염자, 쓰러진 군인의 전술카메라에 그의 모습이 잡힌다.

<오국장 방>

한실장 수색대 1 개 팀이 전멸당하는데 30 초도 안걸렸어요. 야간작전 중지하고 개인 화기 보강해야 됩니다.

오국장 절비 맞아? 특수 훈련 받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한실장 훈련 받아 저 정도 되는데 어딴습니까. 보정 영상 보시죠.

버튼을 누르는 한실장. 영상이 점차 선명해지며 얼굴이 또렷해진다. 한쪽 눈이 빨갛게 변한 청산이다.

한실장 사망자로 분류된 효산고 학생 이청산입니다.

11. **효산 사거리 근처 / N**

폭격의 흔적으로 아귀 입처럼 시커멓게 벌어진 구덩이.

시청, 효산역, 법원을 가리키는 교통표지판이 파편으로 찢어진채 구겨져 있다.

청산이 거리 중간에서 눈을 감고 서있다. 무언가를 끌어대는 소리, 카악거리는 좀비들의 목소리,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 등이 뒤섞여 들려온다.

눈을 뜨자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 길게 심호흡을 하는 청산, 효산역 쪽으로 걸어간다.

12. **시청 앞 / N**

남라도 눈을 감고 서있다. 온 신경을 집중하던 남라, 눈을 뜨고 고개를 돌린다.

‘휴먼시티 효산’ 슬로건이 걸려있는 시청, 깨진 유리창 너머로 언뜻 불빛이 보인다.

13. **시청 의회 / N**

반원형으로 펼쳐진 극장식 의회 공간 내부를 살피는 남라, 의장석 공간 아래 소파와 간이 침대가 있고 담요가 호트러져 있다. 테이블에는 음식을 먹던 흔적이 남아있다.

테이블로 가는 남라. 누군가 그려놓은 그림들이 보인다.

그림을 집어든다. 가슴에 Z 마크가 붙어있는 히어로 같은 캐릭터다.

그러다 테이블에 있던 명패를 집어 어둠 속으로 던지는 남라.

명패를 받는 손, 경계하는 남라... 어둠 속에서 나오는 장호석, 채연수, 주봉근.

장호석이 받았던 명패를 되던지고 남라는 가까스로 피한다.

주봉근 오 피했어!

채연수 찢다!

장호석 너 뭐야?

남라 ...

장호석 이쪽이야 저쪽이야?

남라 ...무슨 뜻이에요?
장호석 사람 먹은 적 있어? 한 번이라도?
채연수 (남라가 고개 저으면) 그럼 우리편!

14. 동 장소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커다란 냄비가 올려져 있다.

장호석 장호석이야. 서운대 다니다 공익으로 왔는데, 이렇게 됐어.
주봉근 나는 주봉근, 애니메이션고 3 학년. (그림 가리키며) 그거 다 내가 그린 거야.
좀비 히어로물인데, 암튼 어디 가던 길이야?
남라 ...
채연수 언니는 왜 말이 없어요? 약간 찌질한 스타일인가?
남라 (채연수 교복 본다) 효산여중이니? 나 거기 나왔는데.

채연수가 발탁 일어나 허리숙여 씩씩하게 인사한다.

채연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효산여중 3 학년 채연수입니다.
남라 인사 그렇게 안해도 돼. 나는 최남라야. 효산고 2 학년.
장호석 학교 있다가 온 거야? 집에는 가봤어?

남라는 대답이 없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린다. 물이 끓기 시작한다.

장호석 우리도 다 집에 갔다왔어.

장호석은 라면봉지를 뜯고, 채연수는 라면을 집어넣고, 주봉근은 김치 봉지를 찢는다.
그들은 이미 슬픔에 익숙한 듯 보인다.

15. 동 장소 / N

불 꺼진 효산시 하늘 위로 별이 촌촌하다.
남라와 일행들이 높은 창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다.
주봉근은 스케치북에 폐허가 된 효산시 풍경을 그리고 있다.

장호석 나는 여기서 공익 하다가 물렸어. (목덜미 흠터 보여준다)
채연수 나는 여기. (팔을 걸어준다)
주봉근 (엉덩이 두드리며) 나는 부위가 애매해서 못보여 주겠다.

남라 그런데 어떻게 다 여기에 모였어요?

장호석 난 원래 시청에서 근무했고, (주봉근 가리키며) 애는 학교에서 물린 다음에 폭격 피하다가 여기로 왔고, (채연수 가리킨다) 연수는 격리소 출신.

채연수 나는 좀 억울한게 진짜 살짝 물렸거든요? 세게 물리지도 않았어요. 몸도 쯤 이상하다가 말았고. 근데 갑자기 격리소에 있는 사람들 다 피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만 딱 잡아서 막 수갑 채우고 데려가는데, 산채로 생체실험 같은 거 한다고 해서 탈출 했잖아요. 왜 그 영화같은 데 나오는 거 그거, 전선 막 연결해서 징~ 하고 배도 가르고. 우리도 잡혀가면 그럴걸요?

남라 아냐. 그냥 죽어. (모두 바라보면) 혈액 검사 하더니 바로 총 쏘여.

채연수 진짜요?

주봉근 (남라가 끄덕이면) 씨발, 우리가 물리고 싶어서 물렸어? 우리도 피해잔데.

장호석 우리가 사람들 물 수가 있으니까 잠재적 가해자로 분류하는 거지.

주봉근 난 진짜 물 생각이 없다니까?

채연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냐? 군인들 여기 쳐들어오면 어떡해.

장호석 지금은 완전 철통같이 지켜서 안돼. 시간 지나면 다 느슨해지니까 그 때 도망가자.

주봉근 아 씨, 지하철 귀신만 없었어도 글루 가면 되는데.

남라 지하철 귀신이 뭐예요?

주봉근 있어. 지귀. 줄라 무서운 놈. (스케치북 넘겨 보여준다) 이렇게 생겼어.

스케치북을 보는 남라. 온통 까만 배경에 붉은 눈만 그려져 있다.

<플래시백> 지하철 선로 / D

피 묻은 태권도복 차림의 지하철 귀신(이하 지귀)이 서있다. 눈이 붉게 빛나고 있다.

장호석 내가 시청 안전재난실에 있어서 아는데, 효산역 선로 중간에 공조실로 가는 문이 있거든? 공조실 가서 비상구로 나가면 산미천 대교고, 다리 아래 보수 통로로 가면 군인들한테 안들키고 효산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주봉근 그말 믿고 효산역 갔다가 죽을 뻔 했잖아.

<플래시백> 지하철 선로 / D

장호석을 집어던지는 지귀. 장호석이 벽에 부딪혔다가 떨어진다.

주봉근과 채연수, 절비 1 은 이미 쓰러져 있다.

지귀가 절비 1 을 물어뜨는 사이, 장호석이 채연수와 주봉근을 부축해 도망친다.

주봉근 우리가 원래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때 죽었어.

장호석 그 놈은 그 쪽으로 확 간 것 같애. 그냥 괴물이야.

남라 원지 알아요.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애 있었어요.

주봉근 그런 놈들 때문에 우리같이 선량한 절비가 피해를 보는 거라고. 절비라고 다 똑같은 절비가 아닌데.
채연수 근데 지하철 귀신이 여기 쳐들어오면 어떡해?
남라 싸워야지. 어차피 우리도 절반은 괴물이잖아.
장호석 우리 괴물 아냐. 사람이야.
남라 그래도 일단 물렸으니까,
장호석 우린 100% 사람이야. 그거 잊지 마. 안그럼 돌아갈 곳이 없어.

잠시 생각하던 남라, 고개를 끄덕인다.

16. 효산역 지하상가 출입구 / N

멀리 폭격의 흔적이 보이고 주변 건물이 충격으로 일부 무너져 있다.
청산이 계단 앞에 서있다. 심호흡을 하는 청산, 익숙한 냄새가 난다.
청산이 계단을 내려간다.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17. 지하상가, 편의점 / N

편의점 문이 열리며 누군가 안으로 들어온다. 지귀다.
편의점을 한바퀴 둘러보는 지귀.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으로 간다. 아이스크림은 밖에 다 버려져 있고 냉장고 안은 은박 돛자리가 들어있다.
냉장고를 바라보던 지귀, 냉장고 문을 확 열더니 은박 돛자리를 걷어내고 안에 숨어있던 사람을 꺼내 집어던진다.
매대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자다.
알바는 겁에 질려 도망가지만 막다른 벽이다. 알바 목을 움켜쥐고 들어올리는 지귀.

알바 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빙긔 웃는 지귀, 알바 목을 확 물어버린다.
알바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지만 벗어나지 못한다.
딸랑... 편의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확 돌아보는 지귀, 순간 그의 얼굴이 귀남이로 변한다.
청산이 문 앞에 서있다. 표정 없는 얼굴로 귀남을 바라보는 청산.

귀남 월봐 뽕신아. 꺼져.

다시 알바를 물어뜯는 귀남.

청산이 움직이지 않자 다시 돌아본다. 얼굴은 다시 지귀로 바뀌었다.
일어서는 지귀, 입가에 묻은 피를 닦으며 청산에게 다가온다.

지귀 뭐냐?
청산 ...
지귀 그냥 도망가지 그랬어. 그럼 좀 더 살았을 텐데.
청산 ...우리 아는 사이야?
지귀 알고 모르는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다 먹어버릴건데.
청산 너무 익숙한 냄새가 났어. 그 냄새를 따라서 왔는데, 그게 너야.
지귀 (웃는다) 미친 새끼. 무슨 냄새?
청산 ...죽이고 싶은 냄새.

순간 표정이 변하는 지귀. 청산 목을 움켜쥐려는데 청산이 그 손을 잡는다.

18. 편의점 밖 / N

유리창이 깨지며 지귀가 날아와 건너편 상가에 부딪친다.
뒤따라 나오는 청산, 지귀는 느긋하게 일어나 옷을 툭툭 던다.

지귀 좀 치네?

다시 달려드는 청산, 이번에는 지귀가 청산을 잡아 집어던진다.
청산이 일어서는데 어느새 다가와 다시 공격하는 지귀.
청산은 공격을 막다가 팔꿈치가 밖으로 꺾이며 부러진다.
태권도 선수 출신인 지귀 공격은 화려하고 청산은 계속 고전을 한다.
부러졌던 팔이 회복되며 청산은 가까스로 지귀 목을 휘감는다.
지귀는 몸을 흔들며 떨어내려 하지만 악착같이 버티는 청산, 나머지 한쪽 눈도 붉게
변하기 시작한다. 양쪽 눈이 모두 붉게 변한 순간, 청산이 지귀 목을 물어뜯는다.

19. 편의점 / N

지귀의 긴 비명 소리 들린다.
죽은듯 쓰러졌던 알바가 조금씩 경련을 하더니 생선처럼 온 몸을 팔딱인다.
그러다 멈추더니 확 일어나는 알바, 한쪽 눈동자는 너무 작고 다른 쪽은 너무 크다.
지금까지 보던 좀비와 다르다.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

20. **분식집 / N, 초겨울**

기가 막힌 수박, 입을 반 썸 열고 황당한 얼굴로 앉아있다.

TV 에 ‘효산시민 후원금 56 억 가로채 호화생활’이라는 뉴스 자막 보인다.

앵커 효산시민 돕기 국민연대 대표가 후원금으로 모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무려 56 억이 넘습니다. 정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여덟살이 된 현지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로 시작되는 효산시민 돕기 광고
영상이 나온다.

기자 (소리) 효산시민 돕기 국민연대가 만든 광고입니다. 확인 결과 현지라는
 어린이는 효산시에 실재하지 않으며, 영상 속 사진은 모두 포토샵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화면 위로) 단체 대표 이모씨는 가짜 광고로 후원받은
돈 56 억여원을 편취해 명품백과 외제차, 심지어 오피스텔 까지 사들이며...

수박 와 씨 나 저기 10 만원 냈는데.

친구 1 너 돈 많다.

수박 돈 없어. 근데 두번이나 냈다고.

기자 (소리) 연이은 사기사건으로 효산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1. **격리소 마당 (전시존 12 회 #27) / D**

격리소 내부, 바리케이드와 천막 줄 등에 리본이 빼곡하게 걸려있다.

각 리본마다 죽거나 실종된 사람 이름이 적혀있다.

기자 (소리) 게다가 민간 보험사들은 사망 원인 및 일시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종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격리소 내에 학교도
 만들어졌지만 발령을 받은 교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파행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22. **격리소 강당 / D**

온조가 ‘구호품 (D-Set)’라 적혀있는 종이박스를 들고 걸어간다.

강당 내부에는 효산 1 동, 2 동, 3 동 등 행정구역별로 안내판이 걸려있고, 바닥에는 각
세대별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그곳이 집이자 방이다.

온조가 2 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들어온다. 간이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이다.

박스를 열고 구호품을 꺼내는 온조. 초콜릿과 비스킷 등 간식 종류와 물, 그리고 온라인 강의 전용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노트북이 나온다.

인터넷 강의 화면을 띄우고 출석하기 버튼을 누르는 온조.

출석창에 ‘남온조 (효산고등학교 2-5)’라고 뜬다.

온조가 ‘학교별 보기’ 버튼을 누른다. 수혁, 대수, 효령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보인다.

<플래시백> 전시즌

- 창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잡고있는 온조
- 좀비로 변해가는 경수
- 강당에서 좀비로 변하기 전까지 친구들을 보호하던 준영
- 자기 명찰을 쥐어주고 입을 맞추고 돌아서는 청산

온조가 노트북을 탁 닫아버린다.

23. 동, 각 주거 공간 / D

대수는 온라인 강의를 틀어놓은 채 침대에 누워있고,
수혁도 강의를 듣다가 노트북을 닫아버린다.

24. 시청 의회 / D

백팩을 메고 목도리를 두른 장호석 일행, 남라가 그 앞에 서있다.

장호석 같이 가자. 인근 편의점은 다 털어서 멀리까지 가야 돼.

남라 먹을거 구해서 여기 있다가, 식량 떨어지면 또 구하러 나가고, 그게 다예요?

장호석 먹을게 다는 아니지. 휴대폰 배터리도 구해야 되고.

남라 어차피 전화도 안되잖아요.

주봉근 이 형 여자친구 사진 보느라고 맨날 충전 해.

장호석 가족 사진도 본다.

채연수 (장호석에게) 여친 완전 이쁘던데. 아마 오빠 안기다릴걸?

장호석 그런 애 아니라니까?

채연수 그렇게 생겼는데 뭐.

장호석 어디가! 어떤 부분이!

남라 나... 효산역 가볼게요.

주봉근 거기 지하철 귀신 있다니까? 가면 죽어.

남라 그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 친구들이 학교로 돌아오죠.

주봉근 친구들 때문에 목숨을 건다고?
남라 친구들도 그랬으니까요. 갔다 올게요.

먼저 나가는 남라. 장호석이 잡는다.

장호석 남라야, 너 진짜 죽어. 지하철 귀신은 진짜, 그, 귀신 같은 놈이야.
남라 그 귀신만 없어지면 효산시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요.
장호석 있지!
남라 ... 돌아올 때 먹을 거 챙겨올게요.

남라가 나간다. 장호석은 더 붙잡지 못한다.

25. 주둔지, 야전 천막 (효산시 인근 연수원) / D

강대위 등이 탄창에 탄약을 채운다. 총기도 바뀌었고 탄약도 탄두 끝에 녹색이 칠해진 소이탄으로 바뀌었다. 군복 위에는 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보호대를 둘러서 누가 공격을 해도 물리지 않을 것 같다.

강대위 7.62 미리 철갑 소이탄이야. 반동 세니까 제압 사격 먼저 하고 움직임이 둔화되면 조준 사격 한다. 알았지?
군인들 예 알겠습니다.

강대위가 얼굴 전체가 가려지는 강화 마스크를 쓴다.
한실장이 한쪽 구석에 앉아 그들을 보고 있다.

26. 효산역 지하상가, 출입구 / D

남라가 효산역 앞에 서있다. 안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27. 지하상가 / D

어둠 속을 걸어가던 남라, 지귀가 죽은 채 쓰러져 있다.
지귀를 지켜보던 남라의 표정이 굳는다. 다시 어둠을 향해 걸어가다 멈추고,

남라 나와.

보이는 것은 어둠 뿐이다.

남라 너같은 애들 더 이상 안무서워. 나와.

누군가 남라에게 걸어온다. 조금씩 얼굴 윤곽이 보인다. 청산이다.
남라에게는 그의 붉은 눈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남라 (놀라다) 청산아.
청산 청산이? 그게 누군데?
남라 청산아 나야. 나 남라야.
청산 시끄러. 배고파 미치겠어.

청산이 남라에게 달려든다. 남라는 방어만 하려고 하지만 막아낼 수가 없다.
남라는 온 힘을 다 하지만 결국 목덜미를 잡힌다.
물어뜯으려 다가오는 청산의 얼굴을 밀어내지만 소용없다.

남라 하지 마. 제발 이러지 마.

남라가 물리기 직전, 총소리와 함께 청산 어깨에서 피가 튄다. 어깨 부위가 한웅큼 떨어져 나가더니 숯불이 타듯 빨갱게 타들어가고 청산은 괴로움에 몸부림친다.
상가 끝부분에서 군인들이 총을 쏘고 있다. 남라가 청산을 끌고 자판기 뒤로 숨는다.
총탄은 자판기를 관통하고 폭죽이 터지듯 불꽃이 크게 일어난다.

남라 쓰지 마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총소리에 묻혀버린다.
청산은 남라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허벅지에 총을 맞는다.
더 크게 비명을 지르는 청산. 이대로 있으면 청산이 죽을 것 같다. 남라가 뛰어나간다.
총탄은 붉은 빔줄기를 그리며 어지럽게 날아오고, 남라는 좌우로 몸을 움직이며 군인들 사이로 뛰어든다. 그들을 밀치고 집어던지고 총을 뺏는 남라.

<인서트> 주둔지, 건물 안 야전 지휘소

임시 구성한 지휘통제소에 모니터가 준비하고, 한실장이 전술 카메라에 찍힌
지하상가 현장을 보고 있다.

비명 소리 위로 강대위의 다급한 무전 소리 들린다.

강대위 (소리) 14 팀 지원, 14 팀 지원 바람 이상!

넘어졌던 양하사가 남라를 조준한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누군가 총을 걷어찬다. 청산이다.

청산이 양하사를 물어뜯자 남라가 몸을 던져 청산을 밀쳐낸다.
남라 다리를 밟아버리는 청산, 다리가 부러지며 비명을 지른다.
총소리 들린다. 오른쪽 어깨가 부러진 강대위가 왼손으로 권총을 쏘고 있다.
청산이 강대위 목을 움켜쥐고 들어올린다. 남라가 소리를 지른다.

남라 하지 마 청산아. 제발 그만해.

청산이 강대위 마스크를 벗긴다.
얼굴이 찢어지고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강대위, 청산 얼굴에 침을 뱉는다. 남라가 울며 소리친다.

남라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마!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 청산이 강대위를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남라 청산아. 니가 우리 구해줬잖아. 너 때문에 우리 다 살았어. 수혁이, 대수,
효령이 니가 다 구했어.

달래듯 차분하게 말하는 남라, 청산이 돌아본다. 초점 없는 눈은 더 붉은 것 같다.

남라 애들 잘 있어. 친구들 전부 안다치고, 온조도 무사히 잘 갔어.
청산 ...온조?

<인서트> 영어 생활관 바닥에 떨어진 온조 명찰

남라 친구들 다시 봐야 되잖아. 그런데 니가 이러면 다시는 못 봐.

<인서트> 효산역 지하상가, 출입구
지원을 나온 군인들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다.

남라 배고픈거 알아. 다 죽이고 싶은것도 알아. 근데 그 목소리 듣지 마. 니 목소리
아니야. 너는 청산이야. 니 목소리만 들어.

남라가 입구 쪽을 돌아본다. 청산이도 입구 쪽을 본다. 군인들이 오는 소리 들린다.

남라 도망가 청산아.
청산 ...
남라 (소리지른다) 도망가라고!

강대위를 집어던지고 주춤 주춤 뒷거음질을 치는 청산. 혼란한 얼굴이다.

군인들이 총을 쏘기 시작한다. 안간힘을 짜내 일어서는 남라, 두 팔을 벌린다.
남라 주위로 총알이 빗발치듯 지나간다. 그 중 하나가 남라 옆구리를 스치며 지나간다.
옆구리 살이 한웅큼 떨어지며 타들어간다.
사격이 그친다. 군인들이 남라 앞에 멈추더니 혈액 검사기를 던져준다.

팀장 손가락에 대고 버튼 누른 다음에 이쪽으로 던져.
남라 ...그냥 죽어요. (팔 보여준다) 나 예전에 물렸어요.
팀장 검사 불응하면 경고 후 사살한다.
남라 그냥 죽이라고요. 어차피 우리 구해주지도 않았잖아요.

팀장이 방아쇠를 당긴다. 천정에 맞은 총알이 벽으로 튕다.

팀장 마지막 경고야.

남라 한쪽 눈이 빨갛게 변하기 시작한다. 목소리도 달라진다.

남라 지금 죽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그 때, 팀장이 무전을 받는다.

팀장 11 팀 수신... 명령 재확인 바람...

<인서트> 주둔지, 건물 안 야전 지휘소
한실장 (무전기 들고) 신병 확보하세요.

팀장 확인!

팀장이 눈짓을 하자 군인이 동물 포획용 그물발사기를 쏜다.
발사된 그물이 남라 몸에 감기며,

28. 지하상가, 다른 곳 / D

걸어가던 청산이 멈춘다. 쇼윈도우에 희미하지만 자기 모습이 보인다.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던 청산, 구토를 한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 청산. 양쪽 눈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
눈물을 흘리는 청산. 울음소리 점점 커진다.

29. **국정원 전술탐차 내부 / D**

흔들리는 탐차. 남라가 눈이 가려진 채 양 손이 쇠사슬에 채워 탐차 벽에 묶여있다.
상처는 그새 아물어 가지만 새로 돋은 살이 거칠게 엉겨붙어 있다.
중간문이 열리고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 들린다. 눈가리개를 풀어주는 손, 한실장이다.

한실장 (서류 본다) 최남라. 효산고등학교 2 학년 5 반, 전교 1 등했네?
남라 누구세요?
한실장 감염자는 사망자로 분류한다고 법원 판결 나왔어. 그러니까 너도 사망자야.
지금 여기서 죽어도 아무 문제 없어.
남라 그래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한실장 죽고싶어?
남라 ...상관 없어요.
한실장 그럼 사는 것도 상관 없지 않아?
남라 ...
한실장 다시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가고 사회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남라 무슨 뜻이에요?
한실장 군인들이랑 싸우지 말고 차라리 좀비랑 싸우는건 어때?
남라 ...
한실장 같이 효산시 되찾자.
남라 ...누구세요?
한실장 내가 물어보고 싶다. 넌 누구냐?
남라 ...
한실장 사람도 아니고 좀비도 아니고, 뭐야?
남라 ...사람이에요 ...100%

한실장이 씩 웃더니 악수를 청하듯 손을 내민다. 남라 그 손을 보는데,

한실장 아, 미안.

남라 묶인 손을 풀어주는 한실장. 다시 손을 내민다.

30. **시청 의회 / N**

장호석 등이 황당한 얼굴로 남라를 보고 있다.

주봉근 먹을거 구해온다더니...

시선을 돌리는 주봉근 등, 옆에 한실장이 서있다.

한실장이 봉투를 들어보인다. 치킨이다. 테이블에 봉투를 올려놓는다.

<동 장소>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치즈볼 등이 푸짐하게 놓여있다.

장호석은 심각한데 채연수와 주봉근은 치킨만 바라보고 있다.

주봉근이 닭다리 하나를 슬쩍 집어드는데,

장호석 야!

주봉근이 닭다리를 내려놓는다.

한실장 여자친구 이름이 서운진이지? 잘 있는지 알아봐줄게.

장호석 (남라에게) 너 우리 얘기 어디까지 한 거야?

채연수 아 몰라. 난 할래. 좀비는 안무서워. (닭다리를 든다)

장호석 넌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치킨이랑 바꾸냐?

주봉근 난 결정 안했는데 일단 먹을래. (닭다리를 든다)

장호석 (그런 주봉근 보다가 한실장에게) 좀비는 그렇다 쳐도 절비는 힘들어요. 지하철 귀신 같은 애들이 한둘도 아니고 잘못하다간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한실장 니들은 이미 죽었어.

주봉근 안죽었는데요?

남라 감염자는 사망자로 분류한다고 법원에서 판결 났대. 우리 다 사망 처리 됐어.

주봉근 씨발. (한실장에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한실장 그래서 약속 하러 왔잖아. 새로운 신분도 주고 안전보장도 해주겠다고.

주봉근이 장호석을 본다. 다들 고민이 깊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임을 안다.

채연수 좀비랑 절비랑 다 없애고 나면 나중에 우리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영화같은데서 보면 막 다 그러던데.

한실장 그러니까 스스로 증명해. 좀비에 가까운 인간인지, 아니면 여전히 사람인지.

모두 말이 없다. 결정이 늦어진다.

한실장 물론 거절해도 돼. 하고 싶은 사람만 해도 되고. 시간이 걸려도 군대 계속 투입하면 되니까.

치익! 콜라 따는 소리가 들린다. 모두 남라를 바라본다.

31. **국정원 복도 - 오국장 방 / D**

휘어진 복도를 바빠 걸으며 서류를 보는 오국장.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남라, 장호석, 주봉근 등 신상 파일을 넘겨보다가 탁 서류를 덮는다.

오국장 좀비로 좀비를 잡겠다고?
한실장 정확히는 공격성이 없는 반감염자입니다.
오국장 공격성이 있든 없든, 반이든 뭐든, 바이러스 있음 좀비지.
한실장 군인들 희생이 너무 많아요. 작전 중에 좀비로 변하면 동료도 싸야 되고요.
오국장 별 수 있나. 싸야지.
한실장 동료 죽여본 적 있으세요?
 (오국장이 기분 나쁘게 바라보면) 그 순간이 오면 모든게 무너집니다.
 애국심? 사명감? 그런거 없어요. 자기 형오만 남아요. 지금 효산시에 투입된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오국장 ...
한실장 희생자가 최소화 될겁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오국장을 따라 들어가는 한실장.

오국장 (책상으로 가며) 이거 잘못되면 니가 책임 질 거야?
한실장 책임지겠습니다.
오국장 니가 뭐라고 책임을 저. 결국 내 책임이지.
 (서류 내려 놓고 서서 사인하며) 작전명이 브릿지가 뭐야. 맥아리 없이.

파일을 표지에 ‘The Bridge’라는 작전명 보인다. ‘1 급 보안 기밀’ 도장이 찍히며,

32. **백화점 앞 / D**

남라, 장호석, 주봉근, 채연수가 백화점을 보고 있다.

장호석 ...가자.

장호석이 앞장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다.

33. **백화점 / D**

남라 일행이 좀비들을 죽여나간다.
그러다 마주치는 여고생 절비, 한쪽 눈이 빨갛다.

남라가 달려들지만 상대가 되지 않는다. 힘과 속도 모두 지귀를 증가한다.
장호석이 합세하고 채연수도 달려들고 주저하던 주봉근까지 뛰어든다.
힘겨운 싸움 위로 흥겨운 음악 선행되며,

34. **홈쇼핑 방송 - 가전제품 매장 / D**

쇼호스트가 한톤 높은 목소리로 공기청정기 판매 방송을 하고 있다.

여 효산사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드디어 계엄령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바이러스 치료제랑 백신이 없어서 아직까지 격리는 계속되는데요,
그만큼 무서운게 바이러스예요.

남 그럼요. 직접 접촉을 안해도 공기중으로 퍼지는게 또 이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정말 정말 필요한 필수품을 소개할게요.
3중 헤파 필터로 공기중 바이러스까지 다 잡아주는 좀비 안심 공기청정기!

쇼핑 방송이 되는 TV 앞으로 수박이와 부모님이 지나간다.
직원이 다가오면 전시된 노트북 사이로 수험표를 올려놓는 수박.
‘수능생 특별 우대’ ‘노트북 최대 15% 할인’ 등 안내문구가 보인다.

35. **지하주차장 / N**

장호석과 주봉근 등이 좀비를 처치하고 있다.
남라도 좀비목을 꺾어 자동차 보닛 위로 집어던진다.
죽은 좀비를 내려다보던 남라, 손등을 보면 살이 찢어져서 뼈가 드러나 보인다.
자동차 유리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다.
얼굴에 묻은 피를 닦는다.

36. **효산고 옥상 / N**

옥상 철문이 열리고 남라가 들어온다.

<플래시백> 전시존 8 회 #37 부터

남라와 친구들이 옥상에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있다.

온조, 대수, 청산이, 마지막으로 수혁이까지 친구들 얼굴이 하나씩 보인다.

모닥불을 피웠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남라가 주섬주섬 탈만한 것들을 모은다.

<시간경과>

모닥불이 타고 있다. 그 앞에 앉아있는 남라. 손등의 상처가 아물어간다.

37. 격리소, 옛 교도소장실 / D

수혁이 서류를 읽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안내문’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수혁 이게 뭐예요?

공무원 주소지 일대가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됐잖아. 그래서 안팔고 버티면 우리 도시공사가 토지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가져간다는 건데, 그걸 왜 니가 물어봐. 니네 집도 아니면서.

수혁 애 보호잔데요.

수혁 옆에 대수가 앉아있다.

공무원 미성년자끼리 무슨 보호자야.

수혁 우린 아무도 없어서 서로가 보호자예요.

공무원 법적 보호자도 아닌데 조용히 하고, (대수에게) 양대수 학생,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수 저 학생 아닌데요?

공무원 (서류 본다) 학생 맞는데?

대수 전학 받아주는 학교도 없고, 학교 만들어도 선생님도 안오는데 왜 학생이라고 불러요?

공무원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고,

대수 엄마 아빠 살던 집이에요. 그걸 왜 아저씨들 마음대로 뺏어가요?

공무원 뺏는게 아니라 효산시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 된 거라니까?

대수 우리 집이라구요.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추모 할 거라고요. 거기 없어지면 난 어디로 가라구요.

공무원 그러니까 보상금 준다고 거기 안내문에 써있잖아.

수혁 안판다는데 왜 억지로 팔라고 하냐구요. 그게 집 뺏어가는 거잖아요.

공무원 공익사업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수 안팔아! 안판다구요. 왜 당신들 맘대로 우리 집을 뺏어요. 엄마 사진이랑 아빠 사진이랑 다 거기 있는데, 집도 못가서 하나도 못 챙겼는데 왜 그것까지 뺏어가냐고요. 우리가 추모공원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 거 만든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울음이 터지는 대수, 일어선다. 따라나가는 수혁을 공무원이 잡는다.

공무원 잠깐만 잠깐만, 니가 보호자니까 말 좀 전해줘.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하라고.
수혁 그거 하면 뭐 달라져요?
공무원 쫘 더 받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거기야.
수혁 끝까지 뺏겠다는 얘기잖아요.
공무원 공익사업이잖아.
수혁 아저씨... 미안하다는 말 한 번 하는게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를 얼마나 더 버려야 속이 시원해요?

공무원은 짜증이 난다. 수혁은 그들을 노려보다 돌아선다.

38. 화장실 / D

수혁이 문 닫힌 변기칸 앞에 선다.

수혁 거기있냐?

홀쩍거리는 소리, 그리고 크게 코 푸는 소리가 들린다.

수혁 아, 드러운 새끼.
대수 나 여기 너무 싫어.
수혁 나도.
대수 사람들도 너무 싫어.
수혁 나도.
대수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고... (울음 터진다) 왜 씨발 내가 괜히 살아서, 차라리 그냥 죽을 걸...

수혁은 아무 말 없이 대수 울음 소리만 듣고 있다.

39. 시청 의회 / N, 눈

한실장이 장호석에게 일회용 휴대폰 충전기 한박스를 준다.

장호석 이거 말고 휴대폰 달라니까.
한실장 여자친구 사진 좀 보자.

충전기를 연결해 한실장에게 주는 장호석. 한실장이 사진을 한장 쓱 넘겨본다.

한실장 잘 어울린다, 돌이.

장호석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저한테 애밖에 없어요.

한실장 우리 팀이 SNS 분석했는데 니 여자친구 아직 너 기다리더라.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장호석은 코끝이 찡해진다. 한실장은 주봉근에게도 선물을 준다. 만화책 세트다.

한실장 코토케 코요루 작가 좋아한다며. 이번에 신작 냈어.

주봉근 대박! 이 작가가 첫 작품 내고 은퇴 선언 했거든요? 다신 못 볼 줄 알았는데.

한실장 아직 완결 안됐는데, 나오는대로 구해줄게.

주봉근 근데 아저씨, 우리 얘기 웹툰으로 그려도 돼요? 국정원 의뢰를 받은 반좀비 히어로 애긴데요.

한실장 안돼. 우리 애긴 빼.

주봉근 창작의 자유가 있잖아요.

한실장 자유롭게 해. 우리 얘기만 빼고. (채연수에게 테블릿 준다) 이걸 연수 거.

채연수 우와! 미쳤다!

한실장 인터넷은 안돼.

채연수 (실망) 아 왜요!

한실장 중 3 이랑 고 1 인강 들어있으니까 공부 해. 나중에 시험 볼거야.

채연수 (빠죽) 나만 필요 없는 거 줬어.

한실장 (주머니에서 티트 하나 꺼내준다) 가져. 요즘 니들 나이에서 유행이더라.

채연수 (티트 받고) 아저씨. 이거 유행 지난지 엄청 오래됐어요.

한실장 ...

채연수 초딩들이 쓰는건데, 요즘을 모르시네요.

한실장 ... (장호석에게) 일은 좀 어때?

장호석 좀비들도 있고 가끔 절비도 나오고, 절비한테 물린 이상한 좀비도 나오고 끝이 없어요.

채연수 자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장호석 우리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한실장 다 끝날 때까지.

언제가 끝일지 모르겠다. 다들 표정이 어두워진다.

한실장 ... 근데 남라는?

주봉근 몰라요. 요즘 밤만 되면 자주 나가요.

40. 학교 옥상 / N, 눈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남라. 벌떡 일어서더니 옥상 출입문 쪽을 바라본다.
잠시 후 문이 열린다. 온조와 수혁 등이 나온다.

41. 동 장소 (전시존 12 회 #39) / N, 눈

온조와 수혁 등이 모닥불 주변에 모여 있다.

미진 유튜브 하는 애들 온 거 아냐? 흥가 체험 하는 애들.
온조 아니. 남라야. 남라가 우리 보고 싶어서 그런 걸 거야.
효령 그걸 어떻게 알아.
온조 몰라. 근데 알 것 같아.

<인서트> 군 경찰 탐차

모니터에 효산고 옥상 적외선 카메라 영상이 떠있다.

군인 1 효산고 옥상에 생체반응 떴습니다. 총 7 명입니다.
장교 저 정도 체온이면 사람 아냐?
군인 1 민간인 같은데요.
장교 경찰기 추가하고 기동대 보내서 잡아.

탐차 일부가 개방되고 경찰드론 두 대가 나온다.

남라 (os) 왔냐?

놀라 돌아보는 학생들. 남라가 그들 앞에 선다.

수혁 반장...
남라 나 아직도 반장이야? 좋다.
수혁 너 괜찮아? 어떻게 지냈어?
남라 보고 싶었어. (친구들 돌아보며) 니들 전부 다.
온조 남라야.
남라 보러 가고 싶었는데 그럼 안될 것 같아서.
온조 아냐 괜찮아. 가자, 같이 가자.
남라 여기 할 일이 좀 남았어.
온조 무슨 할 일?
남라 나같은 애들이 몇 더 있더라. 몇 명은 학교 밖으로 도망간 것 같은데 아직 남은 애들이 있어.

온조 너 좀비 아냐. 그런 말 하지 마.
 남라 학생이 그럴잖아. 어른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나도 그래. 사람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온조 아냐. 우리랑 같이 있자. 우리끼리면 괜찮아.
 남라 같이 안 있어도 우린 친구잖아. 맞지?
 온조 ...
 남라 (수혁에게) 아냐?
 수혁 아니, 맞아. 어디 있어도 우린 친구야.
 남라 그럼 됐어. (운동장 쪽 바라보며) 또 왔다. 나 다시 올게.

옥상 난간 쪽으로 뛰어가는 남라. 뛰어내린다.

42. 2-5 반 교실 / N, 눈

눈보라 사이로 뛰어내린 남라가 펑 소리와 함께 거칠게 건물 난간을 잡고 매달린다.
 창틀을 잡고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남라.
 누군가 교실 중간에 서있다. 다가가는 남라, 돌아서는 남자... 청산이다.
 남라는 긴장한다. 청산이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른다.

청산 배고파...
 남라 ...
 청산 그 목소리만 들렸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 배고파, 먹어, 죽어.
 남라 나도 그랬어.
 청산 지금도 들려.
 남라 나도 그래.
 청산 어떻게 참아?
 남라 다른 목소리 기억하면서. 친구들 목소리, 가족들 목소리, 그리고 내 목소리.
 청산 내 목소리...
 남라 그것만 들으면 돼.
 청산 ...집에 갔다왔어. 가게도 갔다 왔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엄마랑 아빠
 못찾겠어. 그래서 떠나려고.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학교 한 번 오고싶었어.
 이것도 찾았고.

손을 펴보여주는 청산. 온조 명찰을 가지고 있다.

<인서트> 계단

온조와 수혁 등이 빠르게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있다.

청산이 계단 쪽을 바라본다.

남라 같이 있자. 나중에 친구들도 같이 보고.
청산 아니. 혹시라도 애들 물어버릴지 몰라. 갈게
남라 어디 가려고.
청산 몰라. 여기만 아니면 될 것 같아. 갈게.

43. 복도 / N

교실을 나서는 청산. 멈춘다. 눈이 커진다. 복도 끝에 수혁이와 대수가 있다.
그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서는 온조, 청산이를 보더니 눈물이 뚝 떨어진다.

온조 청산아...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다. 온조가 달려온다. 청산은 온조를 뚫어지게 본다.

<플래시백> 전시존 11 회 #31

마지막 인사로 입을 맞추고, 돌아서다 다시 와서 온조를 안는 청산.

온조가 점점 가까워진다.

청산 (소리) 배고파... 죽어버려...

눈물이 차오르는 청산. 온조가 달려와 안으려는 순간 복도 창으로 뛰어내린다.
창문이 박살이 나며 청산이 사라지고 온조는 헛손질을 하며 넘어진다.
수혁과 대수 등은 급히 창 밖을 살피지만 청산은 보이지 않는다.

남라 온조야.
온조 괜찮아... 나 괜찮아...

온조는 눈물이 나지만 웃고 있다.

온조 청산이 살아있잖아. 봤으니까 됐어. 또 보면 되니까... 좋아.

온조는 눈물도 미소도 그치지 않는다.
그들 위로 랜턴 불빛이 비친다. 군인들이 복도 양쪽에서 다가오고 있다.
수혁과 짧은 눈인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남라. 뒷걸음을 쳐 교실 안으로 들어간다.
군인들이 수혁을 제압한다.

<동 장소>

케이블 타이로 손이 뒤로 묶인 채 끌려가는 학생들.
 온조가 수혁을 본다. 수혁은 웃고 있다. 대수를 본다. 그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끌려가면서도 환하게 웃고 있다. 그들 뒤로 2-5 반 교실 풋말 보인다.

온조 (소리) 나 SNS 시작했어. 격리소에 휴대폰 사용 승인이 났어.

44. 몽타주

<강당, 온조 방> / D

강당이 생존을 위한 마을로 바뀌었다. 2 층 난간을 잇는 다리가 보이고 저 마다의 공간에 저 마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좁은 방에 온조, 수혁, 대수, 효령이 모여있다.
 휴대폰을 드는 온조. 넷이서 함께 사진을 찍고 SNS 에 올린다.

<강당, 온조 방> / N

온조가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온조 (소리) 그리고 공부도 시작했어. 나 대학 갈 거야. 아빠랑 약속했던 거 지키려고.

<동 장소, 시간 경과> / D

공용 TV 화면에서 제헌절 행사를 하는 새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
 반팔을 입은 사람들이 짐을 꾸리고 있다.
 칸막이 대부분은 철거됐고, 온조도 책과 옷가지 등을 박스에 넣고 있다.
 수혁이 와서 온조 짐을 들어준다.

온조 (소리) 대통령이 바뀌면서 격리도 끝났는데, 효산시 봉쇄가 안풀려서 집에는 못 가. 대신 새대통령이 우리한테 원룸 제공해 준대. 차라리 잘된건지도 몰라. 집에 가면 아빠 생각이 더 날 것 같아서.

<항구> / D

두꺼운 패딩을 입은 대수, 온조, 수혁이 세월이 묻어나는 작은 항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온조 (소리) 효령이는 졸업 하자마자 부산 할머니한테 갔고, 대수는 멀리 떠났어. 이주 보상비 받은 걸로 무인도를 샀대. 거기에 자기만의 성을 짓겠다고.

수혁이 대수 사진을 찍어준다. V 를 그리며 활짝 웃는 대수.

<특수전 교육단 입구> / D

머리를 말끔하게 자른 수혁이 특수부사관 학교 교문 앞에 서있다. 온조가 배웅을 와줬다.

온조 (소리) 수혁이는 직업 군인이 됐어.

수혁 혹시 남라한테 연락 오면 알려줘. 나 공무원됐다고.

온조 (소리) 공무원이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온조가 수혁 사진을 찍어준다. 활짝 웃으며 거수 경례를 하는 수혁.

<서운대학교 동아리실> / D

테니스 동아리 ‘로얄코트’ 이름 보인다.

온조와 야에 등 대여섯 명이 나란히 서서 인사를 하는데, 온조 혼자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다.

온조 안녕하십니까. 신소재 공학부 23 학번 남온조입니다.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온조. 뒤따라 야에가 인사를 한다.

온조 (소리) 나 대학 합격했어! 신기하지? 굉장하지?

테니스 동아리도 들었어. 열심히 운동 하려고.

<지방도시 공사중인 건물> / 석양

청산이 바다가 보이는 공사중인 건물,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SNS 를 보고 있다.

온조 (소리) 나 무조건 행복해 질 거야.

그래서 니가 오는 날 가장 행복한 얼굴로 안아줄 거야.

언제나 기다릴게. 아무때나 와.

온조가 올린 사진들을 보는 청산, 웃고있다.

45. 시청 의회 / D

폐허가 되었던 효산시에도 푸르게 나무가 자라고 있다.

한실장이 맥주캔을 따서 남라에게 준다.

맥주를 받는 남라, 한실장과 건배를 하고 기분 좋게 마신다.

한실장 봄이다.

남라 그러네요.

한실장 다음주에 효산시 봉쇄 다 풀릴 거야. 그동안 수고했어.

남라 끝인가요?
한실장 끝이지. 너는 새로 시작할 거고.
남라 우리도 행복해 질 수 있을까요?
한실장 당연하지.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데 누구보다 행복해야지.
 그리고, 치료제 개발 됐다.

놀라 한실장을 보는 남라.

46. 연습실 / D

벽에 멤버들 포스터가 나란히 붙어있다.
마루는 회사 대표와 언쟁 중이고, 와니 등 그룹 멤버들은 한곳에 모여 보기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마루 갑자기 탈퇴하라니 말이 안되잖아요.
대표 그동안 너 없이 계속 공연 했고,
마루 효산시 봉쇄 된 거 아시잖아요. 격리소에서 안내보내 주는데 어떡해요.
대표 곡에 니 파트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녹음 할 수도 없고, 안무도 새로 짜야 되고,
마루 보컬 빼는건 괜찮아요. 안무는 금방 따라잡을게요.
대표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마루 저 우리 팀 리더였어요. 컴백 기다리는 팬들은 어떡하고요.
대표 팬들 때문에 그래.
마루 팬들이 기다리니까 합류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 이 날만 기다리면서 버텼어요.
대표 마루야. 너 니 엄마 죽었잖아.

<인서트> #1 연결

달려드는 엄마의 머리를 아령으로 치는 마루

마루 ...
대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우리도 팀 이미지가 있잖아. 니가 이해 해라.

마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대표를 노려보다가 멤버들을 본다. 멤버들 모두 마루 시선을 외면한다.
돌아서는 마루, 나가다가 돌아온다. 벽에 붙어있던 자기 사진을 거칠게 떼어낸다.
사진이 찢어지며 용마루 눈만 남는다. 조명에 반사된 눈이 붉게 보인다.

<끝>

지금우리학교는 VEX